

# 정보의 생활화

金 建 中

〈삼성반도체통신 상무〉



## 필 자

- ▲한양대 공과대학 전기과 졸업
- ▲미 다코타대 전기공학과 대학원 졸업
- ▲삼성반도체 구미공장장
- ▲삼성반도체통신 컴퓨터사업부 본부장
- ▲삼성반도체통신 상무(현)

요즘 정보라는 말이 자주 인용되어 사람들 사이에膾炙되면서, 과거 우리가 가졌던 정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에 정보라 하면 우선 군부대나 어떤 특수기관을 연상, 그러한 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쯤으로 생각하거나, 학창시절 강의교재에서 한 번쯤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정도의 제목만을 생각해 했을 뿐이다.

그러던 정보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양상을 띠며, 경제·사회 각계 각층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 이러한 때 정보에 대한 마인드(Mind)를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라 부를 때 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립된 데이터」를 말하며 이를 협의의 정보라 얘기한다. 오늘날 정보는 정보의 유용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체계화된 정보 즉, 정보의 인텔리전스(Intelligence)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향상돼 가고 있는 데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묶어 광의의 정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정보의 인텔리전스를 위하여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기에 컴퓨터 및 통신의 발전을 계기로 오늘날 고도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컴퓨터 발전추세의 개념으로 볼 때, 과거의 자료처리(Data Processing) 중심개념에서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위주로 그 개념이 변천·발달되었고, 고도의 산업사회 이후 인간의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산업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 산업의 의미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류사회문명은 원시사회, 농경사회 및 공업화사회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른 변화 및 인간의 욕구를 통하여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최초 원시사회 인간은 오로지 전 구성원의 자력생성을 위한 육체적 활동이 지배적이었고, 사회구성원은 오로지 육체적 힘을 중시하는 단순 경쟁사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 극복과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운영관리를 위한 인간지능의 발달로 점차 정신지배계층이 형성되어, 상하 종속관계로 구성됨으로써 인류 최초의 소수 화이트 컬러(White Color) 계층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농경사회는 공업사회로 발전되었고, 공업화 발전에 따라 점차 인류의 육체적 활동이 정신적 활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동화 시대로 접어들어 고도 산업사회가 되면서 점차 인간의 지적노동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시되었다.

여기서 지적 노동력이란 인간의 무한한 창조적 사고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케 해주는 원동력이며, 결국 많은 지식을 수용한 인간이 지적 노동력이 강해지고, 고도 산업사회에서 牽引車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의 산업, 즉 보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인류평화를 위한 인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사회는 계속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런 변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정보감각이 만일 부족하다면 결국 사회의 후미에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화 사회 청사진이 펼쳐져 있고, 정보의 올바른 이용에 의해서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류평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공업사회의 틀 속에 갇혀, 정보에 대한 인식이 채 형성되지도 못한 채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의 정보산업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의 생활화가 급선무인 것이다.

정보산업은 우수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혁신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또한 그런 기술 혁신이 컴퓨터, 반도체 및 통신기술에 반영되어 오늘의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기술력이 선진국보다 뒤떨어지고 있음은 모든 면에 있어 그들보다 정비가 뒤쳐지고 있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대량적인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보다 심각하게 정보의 생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의 생활화란 같은 문제의식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정보마인드 확산이 우선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정보 및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감각을 살리고, 정보 지향성을 유지하여 인간의 창의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정보마인드를 바탕으로 우리는 연속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그런 활동에 따른 정보를 많이 축적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원활히 수행해야 하며, 그 교류의 속도 또한 매우 민첩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각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나 단말기가 고루 보급되며, 이의 주된 사용자는 가정주부가 된다. 그런데 현재 이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를 통해 주부들에게 정보마인드를 심는 것이, 정보화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